

# “도시 전체 정원으로 조성...관광객 끊이지 않는 ‘제2의 경주’로”

##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조충훈 순천시장

조충훈(61) 순천시장은 사실상 3선 단체장에 해당한다. 2002년 처음 시장이 됐고, 7년만인 지난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번 지방선거까지 무소속으로 내리 2선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국가정원 1호의 기반을 닦았다. 조 시장은 정원박람회 성공을 바탕으로 민선 6기에는 순천 전체를 정원도시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연중 끊이지 않는 ‘제2의 경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순천·여수·광양 등 동부권 3개 도시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정서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를 만나 시장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민선 6기 비전과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정원이 중심이 되고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으로 만들겠다. 순천은 지난해 정

원산업의 메카가 된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순천이 정원문화의 발상지가 된다면 전 국민이 정원에서 힐링을 체험하고자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정원문화 지원센터 건립, 가드닝스쿨, 정원산업 박람회 유치 등도 계획하고 있다.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지역경제뿐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화훼, 뷰티, 조경산업은 청년들의 희망 일자리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순천은 철쭉 묘목의 생산량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자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철쭉 연구소를 만들어 순천 특유의 종자개발을 한다던 비전이 있다. 철쭉 피는 시기를 조정하고 한 나무에 두 색깔의 철쭉을 피게



**조충훈 시장 프로필** ▲1953년 순천 출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도시환경행정학과 졸업) ▲제40대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 ▲민선 3, 5기 순천시장

## 새 블루오션 정원산업 키우고 ‘더 큰 순천’ 실현 마이스산업 육성·제1호 국가정원 지정 총력전

원박람회 성공을 계기로 남도의 자그마한 도시에서 생태도시로 브랜드가 업그레이드됐다. 이를 계기로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연결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

지금까지 순천은 낙안읍성, 선암사, 순천만 등 많은 관광지가 있었지만 스펀지가 관광지였다. 이제는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서 순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봉화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어 21세기 트렌드인 힐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정원문화의 발상지인 만큼 조경, 화훼 등 새로운 블루오션인 정원산업을 키우고 여기에 정원을 활용한 컨벤션이나 전시회 유치를 통한 MICE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한 생태체험 학습장이자 수학여행의 메카로 만들어 나간다면 민선 6기 비전인 ‘더 큰 순천’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일자리 문제는 순천이 정원문화와 정

하는 종자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면 된다.

-순천이 정원문화의 발상지가 되려면 국가정원 1호 지정이 시급한데.

▲순천만 정원이 개장하고 두 달여 만에 관람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정원문화 선도 지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우리 시는 상가 골목에도 한평 정원을 만드는 등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노력을 감안하면 국가정원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발의로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산림청 등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정원 1호로 반드시 지정될 것으로 확신한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 등이 이뤄져 순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순천만정원과 연계한 ‘그린웨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린웨이가 무엇인가.

▲그린웨이는 순천만정원에서 동천을 따라 장대공원까지 수목터널 형태의 숲길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순천만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봉화산 둘레길

을 개통하고 이를 남산, 왕의산과 연계했다.

그린웨이가 완성되면 순천만정원-동천-장대공원 구간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따따 같은 명품 수종도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순천만정원과 원도심, 장대공원이 연결돼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천 주변 고가도로 옹벽에 세계 각국의 동물을 소재로 한 그림동물원을 만들 계획이다. 동천은 순천 시민의 허파이며 아이들의 소풍과 체험장으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꿈,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

근에 봉화산 둘레길과 청춘데크길이 있어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올해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원도심 활성화가 기대된다.

▲올 초에 정부로부터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돼 16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여기에 원도심의 오수와 하수를 분리하는 BTL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하수도 정비사업이 확실하게 정비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자치단체 의지, 인프라가 같이 한다면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획기적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흔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원도심에서 잠만 자고 생활은 신도

심에서 한다면 의미가 없다. 원도심에 맞는 문화와 예술로 신도심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원도심에 와서 문화를 즐기고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면 원도심은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예컨대 원도심의 빈집을 시가 임대해서 예술인들에게 빌려주고 거기에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에너지자립도시 구축도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순천 전체를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가야한다. 친환경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와 생활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겠다. 태양광 ESS 시스템 도입, 가로등 LED 확대와 생활형 LED 확대도 전력 소비를 절감하겠다. 태양광 ESS 시스템은 공공받은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곳으로 전송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신호등 없이 자동차가 교차로에 건설된 원형 교통섬을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회전 교

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가는 도시가 된다면 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정책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제 주민 복지정책은 단순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조적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요즘 어른들의 독거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노인들이 공동 취식하는 ‘9988 씬터’라는 것을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만 2세까지 돌보는 유아보육 공립시설을 만들어 워킹맘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장애인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한 교육을 해나간다면 장애인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

-더 큰 순천을 위해서는 도시간 협력의

## 광양만권 통합 위해 문화·예술 정서적 통합부터 원도심 재생사업 박차...복지정책 구석구석 전달

차로를 늘려 에너지 절약과 도시미관도 개선하겠다.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게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내 곳곳에 공공 충전설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이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면 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도시 순천의 옛 명성을 어떻게 살릴 계획인가.

▲21세기 교육의 화두는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 개발’로 학생들의 성향에 맞는 끼를 발산하게 하고 현장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교육환경의 변화를 줄 생각이다.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우수학생을 붙잡기 위해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제도 등을 지원하겠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을 확대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초·중·고 운동부 창단지원, 인성과 지성, 감성을 함양하는 체험형 대안학교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교육도시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권 학교 육성도 중요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을 중시하는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생각이다. 시민들이 평생학습 교

절실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광양만권 통합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여수 세계박람회나 정원박람회에서도 봤듯이 그 지역만으로는 효과가 적다. 따라서 통합이 중요한데 순천·여수·광양 3개 시민 모두가 이해하는 통합이 되어야 완벽한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3개 시가 ‘원원’할 수 있도록 강제적 통합이 아닌 정서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각 시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 부문은 재단을 설립해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중복투자를 막고 퀄리티(질)를 높일 수 있어 결국 3개 시의 공동 이익이 될 것이다.

또 대중교통 문제, 홍보, 관광, 농산물 수출 판로 개척, 중국 관광객을 위한 특구 지정 등 서로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3개 시가 함께 만든 전남영산위 원회도 10년동안 상당한 효과를 봤다. 일례로 우리 시가 구례군과 협약을 맺어 상대 주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줬더니 서로에게 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광역 행정협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정필수기자 buny@kwangju.co.kr /순천=예정열기자 jyi@kwangju.co.kr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  
▶ 도로표지판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